

사무입지에 관한 도시·경제지리학적 연구동향과 과제

안 영 진*

요약 : 사무활동은 (후기)산업사회로의 발전도정에서 도시의 주된 경제활동이자 핵심 고용원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권의 경관과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재편하는데 중요한 동인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도시 및 경제지리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온 사무활동의 입지에 관한 연구동향과 접근 방법을 개관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아울러 사무입지의 주요 전개패턴과 그 변동양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사무입지에 관한 연구의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장래 전망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어 : 사무활동, 사무입지, 입지구조, 입지동태

1. 서 론

사무활동은 이른바 ‘탈공업화’와 ‘정보화’로 대변되는 후기산업 및 지식정보 사회로의 발전도정에서 (대)도시의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핵심 고용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사무활동은 그동안 대도시의 경관과 공간구조를 구성하고 재편하는데 주된 동인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넓은 의미의 사무활동은 오늘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행정관리 기능의 꾸준한 확충과 민간 기업체의 성장과 이에 따른 조직 분화, 그리고 서비스 경제화에 따른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업종의 급속한 팽창, 그리고 각종 단체의 전문화 등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동안 선진 산업국들을 중심으로 사무활동의 발달과 그 입지패턴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다각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특히 사무입지는 (거대)기업의 등장과 함께 생산과 판매 등을 관리, 감독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업무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경영입지의 관점에서 긴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이 뿐만 아니라 사무활동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입지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업체가 입지하는 도시 및 지역의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인식되어 왔다. 다시 말해 사무활동은 주로 수도권나 수도권시 등 특정 (대)도시로의 탁월한 입지지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무관련 고용 및 기능의 특정 장소로의 과도한 집중과 아울러 심각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조교수

한 지역불균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들어 도심기능으로 인식되어온 사무입지가 이심화와 아울러 분산화를 겪으면서 대도시권의 경제 및 토지이용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활동의 입지에 관한 연구는 경제지리학적 방법과 아울러 도시지리학적 접근이 요구되는 분석적-이론적 주제인 동시에,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의 정책적-응용적 과제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6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무활동은 뚜렷한 성장추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8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도시 개발공간의 확대로 사무관련 직종과 그 종사자, 그리고 사무공간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더군다나 서울의 경우에는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의사결정 및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고차 사무업체(예컨대 행정중추관리 및 기업본사 부문)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그 어떤 산업부문보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이른바 사무실을 바탕으로 한 생산자서비스 업체까지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서울을 사례로 한 사무활동의 발달과 그 입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간헐적이거나 꾸준히 이루어져왔다(張英熙, 1978; 金光益, 1983; Kim, 1983; 한대권, 1995; Nahm, 1998 등).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여타 (대)도시에 관한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성과도 부분적인 분석에 치우쳐 사무입지의 형성과 그 구조적 패턴, 그리고 변화에 관한 종합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의 원인은 불명료한 사무활동의 범위와 개념, 이에 관한 (통계)자료의 부족, 그리고 사무입지에 관한 이론적 논거의 빈곤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대도시의 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말해주듯이 사무활동이 도시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

이며, 따라서 지리학적 연구과제로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도시·경제지리학의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사무활동의 입지에 관한 연구동향을 개관하고, 장차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시키기 위해 기존 연구성과의 문제점과 함께 장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사무활동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는 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뒤이어 사무입지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주요 흐름을 개관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접근 방법론을 나름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이와 함께 사무입지의 구체적인 전개양상과 그 변화의 주된 동인을 논의한다. 마지막 결론부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구체화하면서 사무입지 연구의 의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그 장래 과제를 검토한다.

2. 사무활동의 개념

사무입지에 관한 연구자들은 무엇보다도 사무활동을 둘러싼 개념 규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리학은 물론이고 경영학을 비롯한 인접 학문분야에서도 사무활동에 관한 통일적인 개념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사무입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와 결부되어 있다. 바로 이점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사무활동에 관한 엄밀한 개념규정 없이 자료의 존재여부에 따라 사무입지를 편의적으로 고찰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적잖은 분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무활동은 기능적 측면에서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형태로 의사소통과 거래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아이디어,

그리고 지식을 수집·저장(기록)·정리(가공·발안)·교환(전달)하는 업무활동이며, 따라서 일반 행정사무의 지원기능과 이를 기획·통제·관리하는 조정기능, 그리고 전략적 의사결정기능을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de Lange, 1989). 그 동안 사무활동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개념 규정은 누구에게나 큰 이론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실제 사무활동의 발달과 입지를 실증적으로 논의하고 파악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사무활동을 말할 때, 그 활동이 전개되는 장소, 즉 사무실(office)에 대한 선입견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독자의, 단일 기능의 사무건물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Alexander, 1979). 또한 사무공간이나 사무빌딩에 대한 통계자료도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단히 단편적이고 빈약한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무활동의 입지패턴을 사무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는 것은 그리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때 많은 연구들은 사무활동을 3차 산업이나 (고차)서비스업의 동의어로 이해하거나, 4차산업으로 정의하기도 했다(Gottmann, 1970; Dach, 1980; Heinritz, 1985). 특히 후자의 경우 사무활동을 산업보다는 직업의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무활동을 직업유형에 의거하여 접근할 경우에도¹⁾ 분류상 적잖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사무입지연구와 관련하여 사무활동의 기능적 측면과 아울러 형태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즉, 사무활동을 기능적 측면에서는 업무내용과 직업, 그리고 조직으로, 형태적 측면에서는 건물과 시설로 규정할 수 있다(Goddard, 1975)는 것이다.

결국 사무입지는 사무실과 사무빌딩이라는 업

무장소 및 시설, 사무활동의 기능과 조직체계,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의 직업 등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 입지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사무활동에 대한 정의보다 이러한 개념 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과연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무활동의 입지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무공간과 그 건물,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에 관한 통계를 보조자료로 하여, 사무조직 및 사무업체와 교차, 조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사무입지에 관한 연구동향과 접근방법

1) 주요 연구동향

사무입지에 관해서는 지리학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과학에서도 오랫동안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공업입지와 비교하여 사무입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성립하였다. 물론 1960년대 중반이후 이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도시 및 경제지리학 내에서 독자적인 연구주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숙되고 포괄적인 입지론은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입지에 대한 선구적 연구는 이미 20세기 초반 도시경제학자 Haig(1926)에 의해 접촉비용에 따른 사무활동의 도심부 집적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종의 '도심연구'에 해당하는 본 연구 이후, 사무활동의 공간적 집중과 분산에 관한 신고전 경제학적, (도시)지리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행해졌다. 도시구조모델의 제시한 Burgess

(1925)와 Hoyt(1939), 그리고 도시에 관한 이른바 신고전 경제학적 연구들(Hurd에서 Alonso에 이르기까지)은 사무활동을 중심업무지구의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Colby(1930)는 사무활동의 중심적 입지경향을 지적하고 있으며, Murphy와 Vance(1954; 1955)는 사무활동의 도심부 집적경향과 함께 그 기능분화를 언급하고 있다. Scott(1959)와 Davies(1960)도 도시 중심부에의 사무활동의 집적과 지구형성을 보고하고 있다(山崎 健, 2001).

1950년대에 들어서서 사무활동이 선진 제국의 대도시에서 중추적 경제부문으로서 점차 부상되면서, 사무활동의 일반적 입지구조와 그 이전형태, 그리고 특화지구의 형성 등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사무입지형태론'으로 정리된다. Rannells(1956)는 미국 필라델피아를 사례로 서로 다른 사무업종의 공간적 집중과 분산, 그 이전 형태를 조사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는 Morgan(1961)의 런던 도심부에 있어 사무기능의 입지분포에 관한 분석이 있는데, 사무입지의 분포도를 갖고서 사무활동의 유형에 따른 집중과 분산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상이한 사무활동의 공간적 집중과 사무활동간의 기능적 연계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입지의 사회공간적 위광(*prestige*)에 소급하고 있다. Foley(1956)는 샌프란시스코를 대상으로 사무활동의 초기 교외화 양상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지이전의 동인을 사무활동과 생산활동의 통합, 사무공간의 확장, 임대료 절감, 교통혼잡의 해소 및 통근상의 편리성 등에서 찾고 있다. 동시에 이 연구는 사무활동의 이심화에도 불구하고 도심입지는 여전히 본사(*head office*) 또는 전방사무기능(*front office*)에 의해 선호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Hoover와 Vernon(1959)은 일찍이 도

시 및 지역계획의 관점에서 뉴욕시의 사무활동의 입지동태에 관한 연구에서 본사와 관련 서비스업체의 맨해튼 도심에의 집적과 루턴한 사무기능의 이심화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은행과 보험기관을 중심으로 한 집적지(*financial community*) 형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양한 경제활동의 사무지구에서의 집중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도심부의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Robbins와 Terleckjy(1960)도 이와 비슷하게 금융지구의 형성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1950년대까지의 연구는 사례지역을 바탕으로 하여 사무업체의 도시(도심)의 토지이용패턴과 관련한 기능적 분화와 그 입지구조를 분석하고, 특히 입지요인과 아울러 사무활동의 상호작용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사무활동의 입지조건과 구체적인 기능연계에 관한 종합적인 탐색은 결하고 있다.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걸쳐 이른바 '사무입지연구'(office location research)는 사무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첫 절정기를 맞이하게 된다(Daniels, 1979; Heineberg et al., 1983). 사무활동의 급성장에 따른 대도시 도심에의 과도한 집적과 이에 따른 문제점, 사무업체간 접촉 및 연계패턴, 그리고 사무활동의 분산대책과 입지이전에 따른 영향 등을 미시적 관점에서 활발히 연구한 것이다. 이미 1960년대 중반 영국에서는 런던 대도시권에 있어 사무활동의 지속적인 집중을 저지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변부로의 분산을 촉진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강력히 실시하게 된다(Manners et al., 1986). 이에 지리학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분야에서 도심 사무활동의 성장과 집적, 사무활동간의 접촉체계와 그에 따른 분산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도심의 사무입지에 관한 일련의

연구(Goddard, 1967; 1968; 1971; 1973)를 비롯하여, 사무활동의 입지행태를 모델적으로 설명한 연구(Cowan, 1969)가 이루어지게 된다. 대도시, 특히 런던으로부터의 분산에 관한 연구는 사무업체의 이심화 과정(대표적으로 Hall, 1972; Daniels, 1969; 1975; 1977 등) 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의 입지이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귀결을 다루고 있다(대표적으로 Daniels, 1972; 1973; Bateman and Burtenshaw, 1979; Sidwell, 1979 등).

이 시기의 사무입지 연구에서 또 하나의 중점을 형성한 것이 사무업체 또는 기업내 사무 종사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과 그 접촉형태에 관한 연구이다. 그 분석 배경은 대도시나 도심으로부터 타지역으로의 분산 또는 이전 가능한 사무업체를 찾아내는데 있었다(Gad, 1983). 물론 정보흐름에 관한 거시공간적 접근이 그 이론적 토대였는데, 주지하다시피 스웨덴 지리학자들은 일찍부터 경제활동의 커뮤니케이션과 공간발달간의 상호 관련성에 큰 관심을 쏟아 왔다. 따라서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무입지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지닌 의미, 접촉관계와 사무기능의 입지적 분산 가능성 사이의 상호 관련성, 그리고 또한 각종 의사소통관계의 공간정책적 함의에 관한 많은 연구가 행해지게 된다(대표적으로 Goddard, 1975; Goddard and Pye 1977; Goddard and Morris, 1977; Fernie, 1977; 1979; Pye 1977; 1979; Bannan 1979; Gad, 1979; Code, 1983; Ikezawa, 1994; Quante, 1976 등).

이 시기에 들어와서 이처럼 미시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 이외에도, 거시공간적 측면에서 사무활동의 입지패턴을 고찰하는 연구들도 다양하게 나오게 된다. 그 핵심 논제는 수위도시 또는 선도

적 도시에서의 사무활동의 지배적인 입지향에 관한 것으로서, 일련의 연구들은 한 국가의 도시체계와 관련한 사무활동(사무업체 및 사무관련 종사자)의 지역적 분포와 분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본사기능의 분포구조와 특정 대도시권에의 집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미를 사례로 한 이러한 연구와 유사한 분석들이 거의 모든 선진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대표적으로 Rhodes and Kan, 1971; Burrows, 1973; Evans, 1973; Parsons, 1972; Westway, 1974; Borchert, 1978; Stephens and Holy, 1981; Semples and Phipps, 1982; Wheeler, 1987; Wheeler and Brown, 1985; Lyons, 1994; Johnston, 1966; Johnston and Rimmer, 1967; Coffey and Mcree, 1990; Ahnstroem, 1984; Abe, 1984; Hono, 1984; Fujita, 1994; Krickau-Richter and Olbrich, 1980; Strickland and Akien, 1984; Kraetke, 1991; 1995 등).

다른 한편으로 1970년대 중반이후 사무입지의 교외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대도시권의 공간변화와 관련한 사무활동의 이심화와 분산화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된다. 북미의 경우 사무활동의 교외화가 앞서 지적하였듯이 1950년대에 들어 이미 시작되었으나 60년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제조업이나 각종 도소매 및 기타 서비스 업체에 비해서는 여전히 지체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 교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교외지역의 성장이 곧 도심지역을 앞지르게 되며(Hartshorn et al., 1989), 이에 개별 대도시권을 사례로 한 다양한 연구가 나오게 된다(대표적으로 Armstrong, 1972; 1979; mammals, 1974; Vahaly, 1976; Schwarz, 1979; Daniels, 1982; Smith and Selwood, 1983; Code, 1983; Gad, 1979; 1983; 1985; 1991; Hunag 1989; Hutton and Ley

1987; Ley 1985; Ley and Hutton, 1987; 1991 등). 영국에서도 사무활동의 도심에서의 교외로의 이전에 대해 연구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서도 유사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대표적으로 Daniels, 1974; 1977; 1984; Gert and Korteweg, 1976; de Schmidt, 1985; van Dinteren, 1987; de Schmidt and Hessel, 1991; Tordoir, 1991; Hessel, 1992; Korteweg and Lie, 1992; Alexander, 1979; Daniels, 1986; Edington 1982 등).

뒤이어 1980년대 중반이후 사무입지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과 사례 지역을 바탕으로 한 다원적 접근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경제의 고도화와 정보화, 그리고 서비스화로 인하여 사무실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 (office-based industries), 즉 기업본사와 지사, 금융·보험·부동산업과 지식·정보·기술 집약적인 고차의 생산자 서비스 분야의 급성장에 힘입어 이들 사무활동의 입지구조와 그 변동양상을 입지요인과 도심과 교외지역 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후에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세계적 도시체계의 형성과 관련한 사무활동의 역할과 분포패턴을 논의한 연구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무업체의 조직구조의 변화에 따른 입지동태를 분석하고, 국지적 기능연계 및 사무활동의 생산네트워크를 탐색하는 연구도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Marshall, 1988; Daniels, 1991; Staudacher, 1992).

2) 사무입지에 관한 접근방법론

이상의 사무입지에 관한 연구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입지 연구는 점점 분화된 문제제기와 함께 광범위한 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

만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은 사무입지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갖가지 한계 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Daniels, 1979; Daniels and Holy, 1983; Heineberg and Heinritz 1983; de Lange, 1989; Wood, 1989; Acker, 1995). 그 중 하나의 공통적인 지적은 사무입지에 관한 이론적 논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것이다. 이 점은 그간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접근에 의존해 왔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농업입지론이나 공업입지론에 비견되는 사무입지론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무입지에 대한 규범적 특성을 뚜렷이 하는 이론적 접근을 전혀 없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사무입지에 관한 연구성과를 정리한다는 견지에서, 이에 관한 이론적-모델적 접근을 몇 가지 갈래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Ahn, 1998: 19-33).

첫째로 사무활동에 관한 미시입지론적 접근을 들 수 있다. 이는 사무업체의 내부 요인과 조건, 즉 그 구조와 전략, 조직 유형 등을 변수로 하여 사무입지와 그 변화를 설명하려는 방법론이다. 먼저 기능-조직론적 접근에서는 사무입지에 관한 서술과 아울러 그 체계화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 접근 방법론은 사무업체의 업종과 유형(규모, 국적, 주요 기능 등)과 함께 업체의 조직적 특성(본사와 분사, 전방사무기능과 후방사무기능 등)에 따라 사무업체의 입지구조와 그 차별적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Morgan, 1961; Gad, 1983; 1985; Huang, 1989). 또한 도시내 사무업체의 입지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빈번히 인용되는 생애주기론적 접근은 사무입지의 입지와 그 동태를 사무업체의 생애주기에 의거하여 모델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별 사무업체는 각각의 발달단

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지를 요구하며, 따라서 기업의 입지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Cowan(1969)에 따르면, 사무업체의 ‘발달과정’(birth-growth-death-process)은 사무업체의 창립입지의 결정뿐만 아니라, 성장기 동안의 입지변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그는 이에 따라 사무업체의 연령과 이와 결합된 규모가 사무공간에 대한 요구와 건물유형, 각 입지에 대한 투자 정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사무업체의 성장과 이전빈도 및 이전거리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성립한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카디프를 사례로 한 Pritchard(1975)의 연구는 이 방법론을 검증하는 동시에 ‘지리적 중심지’, 즉 도심과의 거리라는 변수를 부가하고 있으며, Michalak과 Fairbairn(1993)도 유사한 분석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기능-조직론이 주로 사무입지의 지속성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생애주기론은 시간적 변수를 고려한 사무입지의 동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사무업체의 성장이 사무공간에 대한 요구의 변화, 따라서 입지변동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증하는 공간요구에 경쟁을 통해 여타 기능을 밀어냄으로써, 공간적 지속성이 강화될 수도 있다. 양적 성장이외에도 질적 구조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입지변동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예컨대 기업의 목표와 그 외적 사업환경, 업무방식 등의 변화 등이다. 이런 맥락에서 입지탐색을 기업의 의사결정과 결부시키는 행태론적 접근이 중요한 의미를 얻게 된다. 미시입지론적 방법론에 속하는 의사결정론적-행태론적 접근에 관해서는 Edwards(1983)가 산업입지론을 원용하여 사무활동의 ‘입지결정모델’(office-sector-process-model)을 제시하고 있다.

사무입지에 관한 두 번째 접근 방법론은 상호작용론적 분석이다. 이는 그동안 사무활동의 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된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그 내·외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 각종 접촉과 기능적 연계의 필요성과 그 패턴,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무업체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정보통신기술의 관점에서 사무업체의 공간적인 입지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행위공간적 접근은 넓은 의미의 접촉과 이를 사무업체의 ‘발전공간’(development space)으로서 시·공간체계와 결부시키고 있다. 즉, 이는 개별 사무업체와 그 공간적 환경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스웨덴의 지리학자들은 이에 입각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개념적 출발점은 사무업체의 제반 활동에 두고 있다(Thorgren, 1970; Olander, 1979; Persson, 1979). 사무업체의 활동을 곧 각각의 활동기간과 활동장소에 따라 하나의 시·공간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일정한 위상의 결과로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개인들은 시·공간의 차원에서 움직이며, 전개하는 활동과 더불어 성격이 서로 다른 각각의 개별적인 도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페르손은 사무입지의 선정에 있어 의사결정자를 중시하며, 입지적 속성은 주관적으로 지각되고 평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적 접근은 개별 사무업체가 보여주는 접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무입지의 일반적 패턴과 그 변화 가능성을 설명한다(대표적으로 Goddard, 1971; Morris, 1976; Pye, 1977 등). 이 접근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과 접촉구조가 사무활동의 입지

에 결정적인 조건이며, 특히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만한 정보(와 아이디어, 지식, 문건)의 교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론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과 접촉구조에 관한 분석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제반 형태(예컨대 접촉의 기간, 빈도, 그 참여자수, 이용하는 정보통신 매체 등)가 중요하다. Thorngren(1970)은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의 공간적 근접성에 대한 독특한 요구에 의거하여 세 가지 범주, 즉 통상적 접촉, 기획적 접촉, 그리고 방향정립적 접촉으로 나누고 있다. 결국 각 사무업체의 지배적인 접촉형태가 무엇인가에 따라 중심부 또는 주변부에의 입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 접촉의 필요성이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최대의 접촉 잠재력을 지닌 장소는 도심이며, 특정 사무활동의 도심입지를 교외입지로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정보)통신 기술이 제시하는 가능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접근 방법론에 약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무입지를 오직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환원시켜 일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타 입지요인의 중요성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사무업체의 입지(선정)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전제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공간구조론적 접근을 들 수 있다. 이 접근은 사무업체의 입지구조와 행태를 규정하거나 더불어 조형하는 공간구조적 측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접근 방법론이 사무업체의 구조적 변수 이외에 그 입지향과 행태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참조하고 있는 반면, 구체적인 공간관계 또는 공간적 여건을 무시하고 있다. 사실 입지행동을 규정하거나 더불어 조형하는 틀이 존

재한다. 사무업체의 입지패턴은 그 입지공간이 보여주는 내적 특질과 그 분화양상을 고려할 때 비로소 체계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논점이다. 이에 사무업체의 입지전개나 그 동태의 일면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적 접근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de Lange(1989)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역사·발생론적 접근이 있다. 이는 오늘날의 사무입지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사무활동의 발달과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서로 상이한 입지요구를 지닌 시대적으로 분화된 과제와 따라서 개별 사무업종의 시대 특유의 입지행태를 논의하고 있다.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진 입지요인(예컨대 전통적인 지구형성, 개별 입지공간에 대한 평가 등)과 아울러 특유의 도시발전과정(예컨대 도시화과정)을 함께 참조하는 것이다. 이어 Barse(1978)가 주창하고 있는 쇠퇴·확산론적 접근은 사무업체의 공간적 분포를 쇠퇴 및 확산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사무업체의 공간적 분산화를 공간상의 확산문제고 고찰하고 사무업체의 등장과 확장과정을 쇠퇴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대도시권에서 성립하는 사무업체는 쇠퇴로서 이해되며, 그 분산은 도시의 계층구조, 특수한 서비스와 잠재 노동력, 다각화, 시장 잠재력 등에 의해 조장된다고 한다. 이러한 확산은 특히 새로운 기업에 대한 정보와 기존 기업의 잠재적인 시장으로의 진출에 의해 초래된다고 지적한다. 사무업체의 확산은 교외화 과정의 일부로 파악되며, 그 확장의 동태는 잠재적인 목적지의 독특한 공간적 특성에 반응한 것이라고 한다. 확산은 'S'자의 로기스틱 커브를 그리며, 그 채택시점은 업종의 특성뿐만 아니라 목적지의 계층적 속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기능으로서 사무활동의 입지를 그 입

지요구와 공간적 조건(공간구조적 측면들)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논증하는 일련의 연구 방법론이 있다. 이러한 접근으로서는 지가 및 지대론적 접근, 집적론적 접근, 중심지 계층론적 접근, 시장권역론적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도시 내부의 공간조직, 따라서 경쟁적인 사무공간의 이용을 둘러싼 토지의 분포패턴에 대해서는 지대구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접근에서 이제까지 과소 평가되어온 또 다른 변형 이론이 있는데, 이는 사무공간의 생산, 즉 개발에 관한 것이며, 사무입지가 곧 사무공간의 존재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Barras(1983)의 건축주기론이 지적하듯이 사무공간에 대한 투자나 그 시장은 사무입지의 분포패턴과 입지이전에 심대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Schwarz, 1979; Batemann, 1985; Morrison and O'Mailey, 1992 등). 집적 및 외부경제론적 접근은 집적의 경제(및 불경제)에 바탕을 둔 것이다. Gottmann(1970; 1979)는 일찍부터 중심업무지구에서의 다양한 업종에 속하는 사무업체들의 상호 의존성과 따라서 일상적 상호작용 관계를 강조하고, 특히 접근성, 정보흐름, 노동시장, 특화된 각종 서비스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심지 계층론은 중심지이론을 원용한 것으로서, 경제공간의 입지적 조직구조를 계층적이고 특화된 도시질서의 견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 접근은 사무업체의 입지행태와 그 지향을 도시체계의 계층과 그 특화에 비추어 다루고 있다(Stiglbauer, 1989). 그리고 시장권역론은 사무업체의 지사화 양상을 분절화된 틈새시장을 가진 특화된 사무업체나 계층적인 도시체계에 있어 다양한 시장 지위를 지닌 분사의 존재여부에 의존하는 시장에의 출현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Armstrong, 1972; Semple,

1986).

마지막으로 사무입지에 관한 계량적 접근 방법론이 있다. 위에서 언급과 다양한 방법론은 정성적 성격이 강하고, 부분적으로 개별 입지요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접근은 사무입지를 계량적 기법을 원용, 분석하고, 이로부터 명시적으로 정식화된 설명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Cowan(1963)은 사무활동의 성장과 입지적 발달을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 연구결과를 보다 양호하게 설명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을 처음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이 방법론은 대도시권내 사무업체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임대료와 교통비가 사무업체의 입지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도심에서의 접촉패턴은 거리라는 요인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수학적 도식을 활용하여 엄정하게 분석하고 있다. 도시내 사무입지패턴의 균형모델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임대 및 지가이론과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 모델은 사무입지의 주요 변수로 집적경제, 접촉의 이점, 시설비용, 교통비 등을 설정하고 있다(Clapp, 1980; 1983; Tauchen and Witte, 1983; 1984; Kutay, 1986).

4. 사무입지의 전개패턴

사무활동은 현대 산업 및 서비스 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높아지고 있는 경제부문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도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의 주요 고용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기능은 독특한 입지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사무입지의 일반적 패턴은 최근 들어 또 다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기업

의 외부환경이 급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자연히 사무활동의 입지도 다대한 변동을 겪고 있다. 여기서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사무활동의 입지적 성격, 특히 그 입지패턴과 전개과정을 서로 다른 지리적 척도에 입각하여 유형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뒤이어 이러한 변화, 다시 말해 입지동태와 결부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1) 입지적 특성

(1) 도시내부 및 대도시권

도시내부 공간의 구조화에 사무입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헤이그의 연구 이래, 특히 사무활동의 도심부와의 입지경향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도심부와의 집적경향과 함께 그 독특한 기능지역의 하나로서 사무지구의 분화에 대한 논의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입지특성에는 도심부에 있어 대면접촉의 용이성, 도심의 사회적 분위기, 대외적 이미지,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및 확보, 업무관련 각종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접근 등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사무활동의 도심지향적 입지패턴과 그 내부의 기능공간적 특화(office clusters)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활동은 오랫동안 도시의 내부형태와 관련하여 단핵구조를 조형하고 강화하는 입지패턴을 보여왔다. 그러므로 사무입지의 변화에 있어서도 도심부 내에서의 이전이 우세하고, 원심적 분산은 그리 현저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무활동의 입지패턴에 대한 연구도 도심부 또는 중심업무지구(CBD) 내에서의 사무기능의 이동과 그 요인을 설명하는데 큰 관심을 쏟아 왔다.

그러나 사무활동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심부에서 도시 외곽으로, 더 나아가 교외지역으로 분산하는 양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먼저 사무활동의 도심지향 입지패턴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비도심 지역(부심이나 외곽지역)에 도심을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도심의 과밀집중을 경감시켜 주는 각종 사무지구(office complex)가 개발되면서 사무기능의 이심화 현상이 현저해지고 있다. 이는 곧 사무활동의 입지변화와 결부된 도시 내부구조의 다핵화로의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업체의 집중과 분산의 차별적인 입지지향이 부각되고, 사무활동의 업종과 규모, 조직상의 지위, 연한 등으로 본 도심과 비도심 입지간의 계층 구조화가 주목을 받았다.

그 후 이러한 이심화가 더욱 더 진전되면서, 사무활동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교외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무활동은 교외화에 가장 지체된 경제활동 중 하나로서, 인구집단뿐만 아니라 각종 생산활동과 상업판매 및 창고시설 등의 교외화에 이어 비로소 분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무활동은 사무단지(office park 또는 center)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공항이나 지역 쇼핑센터, 고속도로 IC 등에 인접한 지역이나 교외의 신시가지(suburban downtown)와 이른바 엣지시티(edge-city)로 분산되고 있다(Mattew, 1993a, b; Braun, 1996). 그러므로 사무활동의 이심화와 교외화에 따라 대도시권의 사무입지에 있어 한편으로 중심도시의 도심부와 교외지역간의 중심지적 계층구조의 지속과 다른 한편으로 네트워크화로의 전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후자의 경우 교외지역의 입지가 대(對)도심과의 역학관계에서 적어도 경쟁구도를 형성하거나, 이미 사무활동의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우위를 지키기 시작했다

는 것이다.²⁾

(2) 도시 및 지역간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활동은 대체로 특정 장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특히 사무활동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하는데,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단위 면적당 사무공간의 상(床)면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무활동의 특정 지역에서의 집중경향과 이에 따른 지역간 불균등한 분포패턴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후 여러 국가에서 도시체계의 분석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von Einem, 1988).

도시간 또는 지역차원에서 사무활동의 입지구조는 주로 기업활동에 있어 사무조직과 도시체계의 계층적 구조를 함께 고려하여, 고차기능은 수위의 도시 중심지에 집중하고, 저차기능은 도시체계를 따라 분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점과 관련하여 Armstrong(1972)는 기업의 사무기능을 그 시장서비스 권역의 규모에 의거하여 본사(headquarter), 중간시장(middle market), 국지시장(local market)의 사무기능으로 나누고, 각 사무기능의 입지적 지향이 상이함을 설명하고 있다. 즉, 본사는 기업의 사무조직의 최상위 계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 국가 전체에, 중간시장의 사무기능은 지역차원 또는 한 도시 전체에, 그리고 로컬시장의 사무기능은 협소한 소지역에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층이 높은 사무기능일수록 대도시 입지를 지향하는 동시에 그 입지수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연구들은 특히 대기업 본사를 사례로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사무활동의 일반적 입지패턴을 논의하고 있다. 연구동향에서 이미 언급한 사무기능의 거시공간적 입지패턴으로 추정할 수 있듯이, 본사의 사무기능은 대체로

한 국가의 수위도시나 소수의 대도시에서의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대규모 제조업체의 본사가 뉴욕을 중심으로 한 북동부 주요 대도시에서 집중하는 정도는 다소 둔화되고, 상대적으로 플로리다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선벨트(sun-belt)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산화가 곧 전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할 수 없다. 본사기능의 최상위 계층의 대도시에서 집중하는 정도와 형태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예컨대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수도에서의 집중경향이 대단히 현저하다면,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분산경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요인은 분명히 검증되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치체제(중앙집권 또는 연방제), 기업간 그리고 기업과 정부간의 관계라는 조직적 측면, 국토공간의 통합도와 교통통신체계 등에 있어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山崎 健, 2001).

하지만 보다 중요한 측면은 이러한 패턴을 야기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고찰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웨덴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정보흐름(information flow)에 대한 개념구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무입지와 지역 및 도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기본적인 전제는 사무활동간의 접촉패턴이 사무활동의 대도시 집중을 조장하는 일차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추관리 기능을 비롯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의사결정 및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형 사무부문(행정관리 및 대기업 본사기능)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서비스경제화로 성장추세가 뚜렷한 기능형 사무부문(생산자 서비스기능)까지도 상위계층의 대도시에서 집중하여 '기업활동의 복합체'(complex of corporate activities)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

무활동의 대도시로의 집중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기업 상호간 및 정부기관과의 접촉의 용이성, 고도의 숙련된 노동력 시장에서의 접근 가능성, 그리고 상호보완적 대(對)기업서비스의 효과적인 활용여부에 달려 있다고 한다(Pred, 1977).

1970년대 이후 선진 제국의 도시체계 연구에서 (고차)사무입지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시 말해 대기업의 본사와 지사의 입지 및 지역적 전개패턴을 통해 도시체계의 공간구조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무활동의 거시적 입지특성은 지역간 기능분리, 즉 공간적 분업의 주된 동인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Geilinger, 1984). 이 뿐만 아니라 Semple (1985)은 “4차산업활동 입지론”(Quaternary place theory)을 통해 도시체계에 있어 기업의 의사결정활동, 다시 말해 사무활동의 공간적 전개과정을 도식화하고 있다.

(3) 국제적 입지특성

최근 들어 경제의 세계화가 빠르게 진척되면서, 이상에서 언급한 국가적 사무 중심지의 성장 및 변화에 더해 세계적 차원에서 사무입지의 형성 및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무활동의 입지패턴에 새로운 면모가 더해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사무입지의 선택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는데, 특히 시장규모와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고 한다(Dunning et al., 1983; 1987). 또한 국가적 도시체계의 국제적 도시체계로의 재편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다국적 기업의 본사입지가 주목받고 있는데, 국가적 도시계층의 최상위 도시로의 다국적 기업, 다시 말해 고차사무기능을 수행하는 본사의 입지적 특화과정도 논의되고 있다(Rozenblat et al., 1993). 따라서 세계도시의 형

성의 맥락에서 생산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적 관리센터의 등장도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 기능을 지원하는 업무서비스와 금융, 부동산 서비스 등이 기능공간적 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Bosman et al., 1993). 더군다나 자본과 상품의 국제적 교역에 종사하는 금융기관, 상품브로커, 기업본사 등의 업무중개 서비스 등이 세계적 대도시 체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논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차사무기능의 입지패턴은 국제적 차원으로의 확대와 함께 세계적 입지체계를 조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통제, 관리, 조정, 전략적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본사기능은 과거보다 역할과 공간적 범위를 더욱 더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4차산업활동의 공간적 전개패턴에 관한 단계모델은 오늘날 사무활동과 결부된 입지체계가 국가중심지의 성장, 지역중심지의 성장, 국제중심지의 성장, 세계중심지의 성장, 세계중심기의 경쟁이라는 발전 도정을 거치고 있다고 지적한다(남기범, 1998).

2) 입지구조의 재편과정: 입지동태의 작용력과 입지패턴

(1) 기업의 성장 및 조직구조의 변화

주지하다시피 1970년대 이후 (대)기업의 입지 결정과 그 공간구조는 사무입지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Krichau-Richter et al., 1982). 오늘날 사무기능의 입지동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조직구조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무업무의 기능과 조직은 다양한 형태를 띠며 분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입지

분할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업입지론에서는 이러한 점이 오래 전부터 지극히 자명한 사실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간 이러한 양상이 사무활동에서도 점차 뚜렷이 관찰되고 있다. 현대의 기업들은 광범위한 행정 관리 및 마케팅, 그리고 연구개발 조직을 갖추고 있다. 기능조직상 이들 부분기능은 서로 상이한 입지요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 사무 조직체의 입지는 상이한 전개패턴을 보여주고 있다(Wood, 1989).

이러한 사무기능의 공간적 분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복잡 다단하다(Geilinger, 1984). 기능 공간적 분리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점증하는 분업화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관리행정과 생산의 조직적 분리(구상과 실행의 분리)에 뒤이어 배분적 사무활동 내에서의 전문화와 보다 정교한 위계화가 발생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1950, 60년대에 걸쳐 발생한 강력한 기업집중으로 인하여 (대)기업의 생산과 고용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종래의 독자적 사무입지를 상위의 본사기능을 가진 복합기업 형태의 대기업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집중과정은 한 기업의 양적 규모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기업 내부의 각 기능단위 사이에 기능적 분업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통제 및 조직관리 체계를 창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원인은 기업조직의 재구조화에 소급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수직적 위계구조를 가진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많은 기업들은 시장상황에의 적응이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혁신과 제품, 그리고 의사결정 등에 있어 그 주기는 점점 단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조직의 구조조정을 시도하게 되는데, 정보의 획득과 처리업무 역량의 강화, 인수와 흡수병합, 혁신의 강화, 내포적 시장지향 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간적으로 중요한 조직구조는 큰 변화를 겪어 왔는데(Gros, 1992; Holz, 1994), 곧 사업부문별 조직에서 매트릭스 조직을 거쳐 네트워크 조직으로의 변화인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구조의 형성과 함께 공간적으로 독립된 입지에의 조직단위의 분할과 개별 기업부문의 외부화 양상은 오늘날 기업구조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대)기업 내에서의 점증하는 분업화는 기능단위의 입지 요구에 있어 차별화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사무기업의 다(多)입지성은 다양한 입지에 대한 개별 기능단위의 반응에 다름 아니다. 특히 한 기업이 입지에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조건이 불충분하다고 할 때, 입지의 분할은 공간적,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기존 입지를 공고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Staudacher, 1995). 동시에 입지교체와 같이 전체 이주에 따른 위험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입지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사무활동의 부분 분산 또는 이전(partial relocation)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Gad, 1985). 이는 한편으로 고도로 숙련된 경영관리 직무와 다른 한편으로 정형화된 행정사무 기능, 이른바 후방사무부문에서 관찰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전방사무부문과 달리 특별한 고객통행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행해지는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후방사무직무에 속하는 것이 순수 행정업무, 계산업무나 정산, 회계부기, 고객잔고계산 등이다. 기업 고유의 소프트웨어 작동부문을 포함한 전체 전산 정보처리 부문도 역시 그러하다(Huang, 1989).³⁾

나아가 최근에 들어와서 단순한 전·후방 사무부문간의 양극 구조적 분리패턴을 넘어선 수직적·수평적 기능조직의 매우 복잡한 다중적 분리패턴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대도시권내 사무입지의 미세한 차별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조직혁신, 합리화와 관련하여 분사화나 자회사화로 일부 사무기능과 특정 업무단위가 독립화(externalization)를 추구하거나, 경량관리(lean management) 구조에 따른 일정 업무활동의 외주화(outsourcing)를 강화하는 양상과 함께 이전에 분리된 일부 사무부문이 생산입지에 재통합되는 양상도 찾아볼 수 있다.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오늘날 사무입지의 변화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을 더욱 더 강화될 전망이다. 즉, 기술발달이 사무활동의 입지에 유연성을 제고한다고 볼 수 있다(周成載 외, 1998). 기업내 조직단위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의사소통 매체와 내적 정보흐름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입지이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조직내 정보흐름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로 대체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조직체와 그 내적 분업에 적잖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커뮤니케이션망의 발달과 개선은 기업 내부에서도 정보교환에 새로운 상황을 연출한다는 것이다(Pico et al., 1987).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무업체의 입지선정에 미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행태의 의미를 추적하면서 퇴근키스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접촉구조가 업종과 기업체, 그리고 기업내 위계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

무활동을 전개하는 제 주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접촉의 대부분은 정형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입지와 무관하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대체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종류의 정보흐름은 대면접촉(face-to-face contact)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그 본사기능의 실행적 하위(행정) 사무활동은 입지에 비교적 독립적인 부문으로, 주로 내부적 접촉이 중요하며 정보통신기술로 쉽게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공간 의존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공간과 무관한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도심입지의 선호도와 장점이 일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사무기능의 분산화도 상대적으로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많은 경우 단순하고 정형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접촉만을 대체하며, 따라서 이른바 지향 및 기획 접촉(Elitekontakte)의 대체 가능성은 여전히 낮고, 따라서 이들 기능들은 도심부에 잔류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Ernste, 1987; von Stocker, 1995).

다른 한편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더 중요한 변화는 사무자동화 및 텔레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전혀 새로운 유형의 오피스, 즉 분산형 사무실(예컨대 satellite office, local office, resort office)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재택근무(teleworking/-commuting)의 강화(趙聖惠, 1995; Glaser et al., 2000)와 소규모 홈오피스(SOHO)의 등장 등도 기존 사무입지의 패턴에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3) 사무실의 수급관계

오늘날 사무입지는 사무업체의 입지행태 및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만 분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무입지는 언제나 일정한 사무실 또는 사무공간의 개발과 이를 둘러싼 공급체계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有馬昌宏, 1995). 기존의 사무입지에 관한 분석이 주로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자인 기업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공급측면에서의 변화가 사무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이정훈, 1999).

특히 최근 들어 경제세계화의 추세와 맞물려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자와 함께 기존 산업지구의 사무단지로의 재개발과 함께, 오피스파크(offices park/or center) 및 제조업의 생산기능과 사무기능이 결합된 업무단지(Bueropark/oder Gewerbepark)를 (대)도시 외곽 및 교외 지역에 대단위로 조성하고 있으며(von Einem, 1993), 이는 기존 사무활동의 입지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사무빌딩의 대형화와 고층화 추세가 뚜렷하며, 부동산 시장(임대료, 공실율)의 변동에 따른 사무입지의 선별적 분화도 관찰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무 자동화와 사무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빌딩(intelligent building)이 점차 선호되고 있어, 앞으로 이들 빌딩의 건축 및 이를 둘러싼 부동산 시장의 추이가 사무입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더 가시화될 전망이다.

5. 결론 : 연구과제와 전망

사무활동은 후기산업 및 지식·정보사회에 있

어 도시경제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관건이 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아울러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주로 도시지역에 입지하는 사무활동은 급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도시, 특히 대도시권의 성장과 구조를 파악하는데 제조업 중심의 공업입지론적 접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사무입지의 특성상 도시차원에서는 도심부로의 집중 양상이,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는 소수의 대도시의 집적 경향이 현저하다. 따라서 도시의 경우 교통혼잡과 아울러 사무공간의 확보, 통근난 등의 문제가 격화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는 소득수준과 고용기회의 지역간 불균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도시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입지에 관한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심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긴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 공업입지론이나 상업입지론에 비해 '통합적' 사무입지론이 여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는 형편이다. 그 이유로서 몇 가지 측면을 들 수 있는데, 첫째로 헤이그(Haig) 이래 주로 사무입지에 관해서는 경험적, 귀납적 연구가 이론적, 연역적 연구보다 우세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둘째로 사무입지의 연구에서는 자료 구득의 어려움이 항상 존재하며, 따라서 다양한 실증적 연구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사무활동에 대한 불명료한 개념정의도 폭넓은 연구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특히 사무활동의 기능적, 조직형태적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체계적인 접근이 쉽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공업입지와 달리 사무활동의 입지비용에 대한 명료한 산정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Ahn,

1998).

그렇지만 사무입지는 연구의 배경과 기존의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무입지에 관한 연구 과제와 미래전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테제를 제시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 번째 테제는 사무입지 연구는 최근 도시·경제지리학에서 적잖은 관심을 끌고 있는 생산자 서비스에 관한 연구와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무입지에 있어 기능 및 업무연계와 정보흐름과 연관한 접촉패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제조)업체의 본사와 생산자 서비스업체간의 각종 관계와 이에 따른 입지패턴,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산자 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사무입지에 관한 연구를 폭넓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테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정책과 관련하여 사무입지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도권 성장역제와 기업활동의 입지적 분산과 관련하여 정책의 초점이 생산활동이 아닌 대기업 본사기능과 이와 연관된 고차 생산관련 서비스 부문에 맞추어져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공공 행정기관과 각종 단체의 입지동태와 분산 및 이전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긴요한 실정이다. 지난 6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이른바 재벌)이 등장하면서 본사의 대도시, 특히 서울 입지와 생산부문의 지방 분산이 뚜렷하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농(都農)간 격차뿐만 아니라 경향(京鄕)간의 불균등은 정치 행정 부문의 중추관리기능이 서울 및 그 주변지

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기인한 바가 적지 않으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데에는 민간 기업부문의 사무입지가 서울을 중심으로 일극 집중화되고 있다는 주된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국토공간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분산의 균등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민간 대기업의 사무입지에 대한 보다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사기능에서 출발한 사무부문의 지방분산 가능성과 아울러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테제는 (대)도시권의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동과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무입지의 분화양상(집중과 분산, 선별적 분화와 특화, 계층구조화 또는 네트워크화)과 입지요인, 입지구조의 재편에 따른 영향 등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사무활동의 조직구조와 그 개편, 자본과 노동력의 투입형태, 정보화에 따른 대내·외적 연계패턴의 변화, 오피스시장의 동태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공업입지론이나 상업입지론에 비견되는 사무입지론을 정립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주

- 1) 예컨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전문기술 및 관련 종사자, 행정 및 관련종사자, 사무 및 관련종사자를 말한다.
-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와 분석으로서는 이정훈(1999)의 연구를 참조하라.
- 3) 부분이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기업의 생산방식의 변화, 조직구조, 개별 기업들의 기업내부 조직상의 위상, 각 부서단위 종사자들의 직업상의 숙련과 직무활동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자료를 외부자들이 얻기란 어렵기 때문이다(Heineberg and Heinritz, 1983: 16).

참 고 문 헌

- 金光益, 1983, “서울시 事務業務活動의 立地 및 立地的 特性에 關한 研究,” 地理學論叢 10, pp.253-268.
- 남기범, 1998, “세계화와 4차산업활동 연계공간의 변모,” 박삼욱 외 (편역), 경제구조조정과 산업공간의 변화, 서울: 한울, pp.176-200.
- 李政勳, 1999, “東京大都市圏에서 都心高次業務機能의 郊外移轉에 關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張英熙, 1978, “大都市內部에서의 事務所活動의 立地와 空間構造 - 서울시 企業本社를 中心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趙聖惠, 1995, “在宅勤務者(텔레커뮤니티)의 時·空間行態에 關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한대권, 1995, “서울시 사무기능의 공간분화에 대한 연구 - 대기업 본사를 중심으로,” 地理學論叢 26, pp.15-76.
- 周成載·金太煥, 1998, 情報化時代의 國土政策課題, 안양: 국토개발연구원.
- 山崎 健, 2001, 大都市地域のオフィス立地, 東京: 大明堂.
- 有馬昌宏, 1995, “オフィス市場の理論と分析,” 山田浩之外 (編), 都市と土地の經濟學, 東京: 日本評論社, pp.139-156.
- Acker, H., 1995, *Buerobetriebe und Stadtentwicklung in Berlin - Entwicklungen in Berlin nach 1989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der Immobilienbranche* (= Berliner Geographische Studien 42), Berlin.
- Ahn, Y.-J., 1998, *Entwicklung und Standortstruktur des Buerosektors in Seoul, Sued-Korea, eine Dissertation des Technischen Universitaet Muenchen, Muenchen.*
- Aksoy, A. and Marshall, J.N., 1992, “The Changing Corporate Head Office and its Spatial Implication,” *Regional Studies* 26, pp.149-162.
- Alexander, I., 1979, *Office Location and Public Policy*, London: Longman.
- Armstrong, R.B., 1972, *The Office Industry - Patterns of Growth and Location*, Boston: The M.I.T Press.
- Barras, R., 1983, “A simple theoretical model of the office-development cycle,” *Environment and Planning A* 15, pp.1381-1394.
- Bearse, P.J., 1978, “On the intraregional diffusion of business services activity,” *Regional Studies* 12, pp.563-578.
- Braun, B., 1996, *Neue Cities australischer Metropolen - Die Entstehung multifunktionaler Vorortzentren als Folge der Suburbanisierung* (= Bonner Geographische Abhandlungen 94), Bonn.
- Bosman, J and Smidt, M., 1993, “The geographical formation of international management xenters in Europe,” *Urban Studies* 30, pp.967-980.
- Clapp, R.M., 1980, “The intrametropolitan location of office activiti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0, pp.387-399.
- Dach, P., 1980, *Struktur und Entwicklung von peripheren Zentren des tertiareren Sektors, dargestellt am Beispiel Duesseldorf* (= Duesselder Geographische Schriften 13), Duesseldorf.
- Daniels, P.W.(ed.), 1991, *Services and Metropolit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 Daniels, P.W., 1979, *Spatial Patterns of Office Growth and Location*, Chichester: John Wiley

- & Sons.
- de Lange, N., 1989, *Standortpersistenz und Standortdynamik von Buerobetrieben in westdeutschen Regionalmetropolen seit dem Ende des 19. Jahrhunderts - ein Beitrag zur geographischen Buerostandortforschung* (= Muenstersche Geographische Arbeiten 31), Paderborn.
- Edwards, L., 1983, "Towards a process model of office-location decisionmak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15, pp.1327-1342.
- Ernste, H., 1987, *Buero-Standorte und Informationstechnik* (= Zuercher Geographische Schriften 30), Zuerich.
- Dunning, J.H. and Norman, G., 1983, "The theory of multinational enterprise, an application to multinational office loc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15, 675-692.
- Dunning, J.H. and Norman, G., 1983, "The location choice of office of international compan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19, 613-631.
- Gad, G., 1983, "Die Dynamik der Buerostandorte; Drei Phasen der Forschung," in Heineberg, H. et al.(eds.), *Beitraege zur empirischen Buerostandortforschung* (= Muenchener Geographische Hefte 50), pp.29-59.
- Gad, G., 1985, "Office location dynamics in Toronto; suburbanization and central district specialization," *Urban Geography* 6, pp.331-351.
- Geilliger, U., 1984, *Ausmass, Ursachen und Folgen der funktionalen Arbeitsteilung zwischen Regionen der Schweiz* (= Zuercher Geographische Schriften 12), Zuerich.
- Goddard, J., 1975, *Office Location in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Gottmann, J., 1970, "Urban centrality and the interweaving of quaternary activities," *Ekistics* 174, pp.1-16.
- Gottmann, J., 1979, "Office work and the evolution of cities," *Ekistics* 274, pp.4-7.
- Gros, U., 1992, *Einfluss der Unternehmensorganisation auf den Standort von Zweigbetrieben* (= Nuerberger Wirtschafts- und Sozialgeographischen Arbeiten 45), Nuernberg.
- Glaser, M., and Glaser, W., 2000, "Zukunftsmodel Telearbeit - neue empirische Befunde und eine Zwischenbilanz," in Jessen, J. et al. (eds.), *Neue Medien, Raum und Verkehr*, Opladen, Leske+Budrich, pp.98-145.
- Hartshorn, T.A. and Muller, P.O., 1989, "Suburban downtowns and the transformation of metropolitan Atlanta's business landscape," *Urban Geography* 10(4), pp.375-395.
- Heineberg, H. and Heinritz, G., 1983, "Konzepte und Defizite der empirischen Buerostandortforschung," in Heineberg, H. et al.(eds.), *Beitraege zur empirischen Buerostandortforschung* (= Muenchener Geographische Hefte 50), pp.9-28.
- Heinritz, G.(ed.), 1985, *Standorte und Einzugsbereiche tertiaerer Einrichtunge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Holz, I.-H., 1994, *Stadtentwicklungs- und Standorttheorien unter Einbeziehung des Immobilienmarktes* (= Mannheimer Geographische Arbeiten 36), Mannheim.
- Huang, S., 1989, *Offices Suburbanisation in Toronto; Fragmentation, Workforces Composition and Laboursheds*, A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 Kim, H.-K., 1983, *The Spatio-Temporal Patterns of Personal Contact in the Office Sector: The Case of Seoul*, A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Krickau-Richter, L. and Olbrich, J., 1982, *Regionale Strukturpolitik mit Dienstleistungsbetrieben;*

- Moeglichkeiten und Grenzen der Standortsteuerung* (= Dortmunder Beitrage zur Raumplanung 25), Dortmund.
- Kutay, A., 1986, "Optimum office location and the comparative statics of information economics," *Regional Studies* 20(6), pp.551-563.
- Manners, G. and Morris, D., 1986, *Office Policy in Britain: A Review*, Norwich: Geo Books.
- Marshall, J.N., 1988, *The Changing Organization of Modern Western Society - A Geographical Appraisal of Service Activities* (= Zuericher Geographical Schriften 31), Zuerich.
- Matthew, M.R., 1993a, "The suburbanization of Toronto offices," *The Canadian Geographer* 37(4), pp.293-306.
- Matthew, M.R., 1993a, "Towards a general theory of suburban office morphology in North America,"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7, pp.471-489.
- Michalak, W.Z. and Fairbairn, J., 1993, "The location of producer services in Edmonton," *The Canadian Geographer* 37(1), 2-16.
- Nahm, K.-B., 1998,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Office Location in Central Seoul,"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 pp.85-102.
- Nelson, K. 1986, "Labor demand, labor supply and the suburbanisation of low-wage office work," in Scott, A.J. and Storper, M.(eds.), *Production, Work, Territory; the Geographical Anatomy of Industrial Capitalism*, Boston, pp.149-171.
- Pico, A. and Reichwald, R., 1987, *Buerokommunikation - Leitsaetze fuer den Anwender*, Muenchen.
- Pred, A., 1977, *City-Systems in Advanced Economies*, London: Hutchinson.
- Pritchard, G., 1975, "A model of professional office location," *Geografiska Annaler* 57, pp. 100-108.
- Rozenbelt, C. and Pumain, D., 1993, "The location of multinational firms in the European urban system," *Urban Studies* 30, pp.1691-1709.
- Staudacher, C., 1992, *Wirtschaftsdienste; zur raeumlichen Organsation der intermediaeren Dienstleistungsproduktion und ihrer Bedeutung im Zentren-Region-System Oesterriech* (= Wiener Geographischer Schriften 62/63), Wien.
- Stiflbauer, K., 1989, "Die Entwicklung hochrangiger Zentren ein Problem der Zentrale-orte-Forschung," in Wolf, K.(ed.), *Zum System und zur Dynamik hochrangiger Zentren im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Massstab* (= Frankfurter Geographische Hefte 58), pp.9-32.
- Semple, R.K., 1985, "Quaternary place theory," *Urban Geography* 6(4), pp.285-296.
- Tauchen, H. and Witte, A.D., 1983, "An equilibrium model of office location and contact patterns," *Environment and Planning* 15(10), 1311-1326.
- von Einem, E., 1988, *Bueroflaechenentwicklung im regionalen Vergleich*, (= Schriftenreihe Forschung des Bundesministers fuer Raumordnung, Bauwesen und Staedtebau 484), Berlin/Bonn.
- von Einem, E., 1993, "Flaechenverbrauch durch Buerogebaeude: Hochhaeuser oder Buroparks?," *Information zur Raumentwicklung* 1993, pp. 71-80.
- von Stockar, T., 1995, *Telematik und Stadtentwicklung; dargestellt am Beispiel der Stadt Zuerich* (= Anthropogeographie 14), Zuerich.
- Wood, P.A., 1989, "The spatial corporate organization and its changing environment - implications for the office sector," in Ernste, H. and Jaeger, C.(eds.), *Information Society and Spatial Structur*, London, pp.39-52.

A Review on the Urban-Economic Geographical Research of Office Locations

Young-Jin Ah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jahn@chonnam.ac.kr)*

Abstract : In the recent years the office sector or industry are recognized not only as a key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source in urban areas, but also as a factor for the changing urban spatial structure.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research trends and future prospects on the office locations. The study starts with a survey of literatures by summarizing the most important previous studies on the office location research and by disclosing research deficits. And then general locational trends of office activities on the base on the different geographical scale and its current location dynamics including the influencing factors are discussed. Finally this study summarizes the outlooks on the future task within office location research.

Key words : Office activity, Office location research, Locational factors and dynamics.